

經營理念의 變遷과 그 思想行動에 대한 考察

李 根 熙*

1. 序 論

오늘날의 經營者는 豫測하기 어려운 景氣情況·價值觀의 多樣化·消費者運動의 展開 등과 같은 對境關係에서 해결해 내지 않으면 아니될 많은 課題들에 苦惱하고 있다. 더구나 現代의 經營者들은 國內政治라든가 經濟問題는 물론이고 國際關係·資源關係·南北問題라든가 對共產圈問題 등을 비롯해서 從業員에 대한 敎育問題·福祉厚生問題·産業災害에 따르는 問題·産業公害問題 등 많은 課題들을 意識化하지 않는다면 經營의 課題에 對處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뜻에서 景氣現況을 中心으로 動搖되어 가고 있는 産業社會에서 오늘날 보다 問題點으로서 提起되고 있는 것은 經營主體의 信念과 自身에 基調하는 思想과 行動이 무엇인가에 그 歸結點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經濟主體에 있어서의 思想과 行動이란 구체적으로는 個別企業의 實情에 따라서 그 모습은 千態萬相일 것이기는 하겠지만 現代에 있어서의 企業經營이 갖추어야 할 經營政策·經營目標·經營課題는 個個의 企業成立過程이라든가, 그 背景이나 규모에 따르는 格差를 不問하고 일정한 方向성을 찾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¹⁾.

한편 景氣沈滯의 恒常의인 深刻化는 企業經營者들에 대한 一時的인 辨明이나, 현상유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은 安易한 妥協의 態度를 排除하는 동시에 그와 같은 말하자면, 소극의인 思想的 當爲가 마침내는 비참한 倒産의 過程으로 轉落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經驗의 事實에 입각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積極적이면서도 眞摯한, 探求의이면서도 思想的主體의 行動만이 企業存續의 條件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本小考에서는 嚴襲하는 現代의인 諸排戰을 包容하면서도 일상적인 하나하나의 問題들을 個別化하지 아니하고 綜合的이면서도 全社的인 經營戰略으로 調整·統合해 갈 수 있는 經營主體의 思想과 行動을 過去의 産業社會와 現在의 問題에서 考察해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상과 같은 問題設定이 現在는 물론이고 未來의 産業社會에 대한 基調를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2. 利益概念과 經營近代化

2-1 프로테스탄트의 形成

中世를 지배하던 勞動賤視의 傳統을 송두리채 否定하고, 生産과 勞動을 人間本來의 機能으로 自覺할 수 있는 動機가 된 것은 宗教革命에서 緣由한다. 理性的이면서도 勤勉한 새로운 行動樣式이라는 패턴은 未來에 대한 効用이 現在의 行動을 결정할 것이라는 思考

* 漢陽大 工大 敎授

1) 拙稿, 産學協同과 管理技術의 啓發, 1977. 2. 大韓商工會議所, 産業合理化本部, 工場長協議會

方式의 變革을 이룩한 것은 自主의인 人間에 의해서 形成된다. 더구나 18世紀의 末葉에 잉글랜드에 있어서의 產業革命을 契機로 하는 人類는 새로운 歷史時代로 移行해 왔다. 資本主義나 產業化의 開始時期는 이른바 小企業家의 時代라고도 할 수도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도 自由經濟의 理念이 貫徹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自由經濟의 理念은 어쩌면 近代市民社會의 形成과 거의 대응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며, 自由로운 個人이 스스로의 意思에 의해서 自由로히 行動할 수 있었던 것인 동시에 그와 같은 個人의 自由로운 行動이 궁극적으로는 社會全體의 福祉라든가 번영의 實現에 連繫되는 것임을 뜻하고 있었다. 따라서 資本主義의 발전이나 產業文化의 擔當者가 된 當時의 小企業家의 自由로운 經濟活動은 한 마디로 A.스미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自動的으로 均衡되고 調整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며, 또 現實이 그러하기도 했다²⁾.

經濟를 構成하는 主體는, 각기 自己利害를 最大限으로 追求하는 「經濟人」인 것이며³⁾, 될 수 있는 대로 自由로히 行動할 경우에는 각기 利害를 자기가 期待하는 대로 가장 좋은 獲得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當時이 小企業家인 경우에는 利益追求, 또는 營利志向이 至上目標였다. 다시 말하면 營利主義의 貫徹이 第一義의인 것이었으며, 이것이 곧 小企業家의 經營理念이었던 것이다⁴⁾.

그런데 自由經濟의 理念은 自由라는 標識과 더불어 同時に 競爭이라는 原理를 必然的으로 內在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經濟主體의 自由로운 行動은 主體間에 過大競爭을 불러 일으키었고, 그 결과는 經濟主體는 合理性의 原理에 따르게 되었으며, 마침내는 最適의인 分業關係와 資源配分이 實現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個個 經濟主體의 自己利益追求는 社會全體의 福祉向上에 이바지될 것이라고 믿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產業化의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小企業家들의 自由로운 行動은 營利主義에 입각하는 동시에, 그것이 豫定調和的으로 社會經濟의 厚生에 연결되고 있었던 것이다. 營利主義는 곧 企業의 經營理念인 것이며, 小企業家의 行動動機이기도 했던 것이며, 또 價值觀이기도 했던 것이다. 오늘날의 經營者들 중에도 「自己企業이 營利를 얻지 못하는 것은 社會的으로도 罰惡視」하는 경향이 있으나⁵⁾, 그것은 企業家의 自由로운 行動과 그 결과로서의 利益獲得이 社會經濟의 厚生과 연결되고 있음을 暗暗里에 是認하고 있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일찌기 막스·베버는 近代資本主義下에 있어서의 人間精神이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켈빈派의 禁欲의인 合理主義와 연결되고 있음을 明白히 한 바 있다⁶⁾. 「時間은 黃金」이라고 한 B.프랭크린의 말로 대표되면서 自己資本과 利益을 最大로 하는 것을 自己目的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이 各個人의 義務라고 생각한 近代資本主義의 精神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營利主義를 優先化시키고 있다. 따라서 베버는 이와 같은 精神은 自己利益의 追求를 反道德의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賤民資本主義의 그것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⁷⁾. 그리고 또 베버는 成功을 한 經營者들 중에 프로테스탄트가 많이 있다는 것에 注

2) 池內信行, 經營經濟學史, 1955, 理想社

3) Towne, H.R., The engineer as an Economist, 1886, A.S.M.E

4) Burnham, J.,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the John Day Co.

5) 山城 章, 最高經營政策論, 1960, 白桃書房

6) Weber, M.,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Zuerst 1904/1905), 權世元·姜命奎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 1958, 一潮閣

7) Weber, M., Wirtschaftsgeschichte, 1923,

趙職湄譯; 社會經濟史, 1951, 文研社.

目하고,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켈빈派의 倫理와 行動이 近代資本主義의 精神과 對應關係를 많이 지니고 있다는 것을 論記하면서 그의 倫理가 近代資本主義의 形成에 貢獻했음을 明白히 한 바 있다. 이 경우 켈빈派의 倫理와 行動과는 첫째, 人間社會에서 魔術의 追放, 둘째, 豫定說의 信仰에 입각하는 職業勞動에 대한 끝임없는 努力, 세째, 世俗的인 禁欲의 蓄積欲 등에 의해서 특징지워질 것이다⁸⁾.

2-2 近代的인 經營者의 形成

그러나 小企業家의 時代는 長期間에 걸쳐서 계속된 것은 아니다. 어느 일정한 期間에 있어서는 적지 아니 規則的으로 好況과 不況이 反復的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며, 그러한 經時속에서 일부企業家들만이 살아 남을 수가 있었고, 많은 企業家들은 破産하면서 自己勞動力에만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形態로 轉落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社會는 自律的으로 調整되고 均衡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그대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며, 1920年代 後半에서의 大恐慌까지도 그러한 생각은 깊이 뿌리박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小企業家는 社會의 典型的인 것이었으며, 또 社會의 核心으로 되고 있던 時代는 資本主義나 産業化의 발전과 더불어 이미 그 모습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基本的으로는 위에서 말할 것과 같이 小企業家의 일부가 生存하고 나머지는 挫折되고 말았다는에서 線由한 것이다. 事業에 失敗하고 自己財産마저 喪失한 小企業家들은 勞動者로 移行해 가는 한편, 不況을 참고 견디어낸 小企業家들은 營利主義의 貫徹에만 努力하고 自己利益을 擴大하는 한편, 다시금 큰 市場과 機會를 찾아서 自己事業을 擴張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勞動者로 轉化해간 小企業家의 勞動力이나 生産手段까지도 獲得해 넘으로써 살아남은 小企業家는 工場의 所有者로서, 資本家로서, 企業家로서 成長해 가기에 이른 것이다⁹⁾. 더구나 이 段階에 있어서는 小企業家는 工場의 所有者인 동시에 經營者로서 또는 管理者로서의 역할은 自己 스스로 擔當하고 있었던 것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小企業家로부터 形成되어 온 企業家는 갖가지 危險負擔을 감수하면서도 自己資本을 증가시키고, 利益을 최대한으로 獲得할 수 있는 것과 같은 意思決定을 選擇하고, 또 그것을 위한 行動을 적극적으로 展開하고 있었다¹⁰⁾. 더구나 그와 같은 企業家의 決定과 行動이 그들 企業에서 成功했을 때 비로소 近代的인 經營者로서의 모습이 浮刻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¹⁾.

3. 經營主體와 經營理念

3-1 經營主體의 形成

近代的인 企業主體가 成立하는 過程에 있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限界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첫째는 組織上의 문제인 것으로서 工場의 擴大는 많은 勞動者의 採用을 요청했던 것이며, 또 企業家의 工場管理能力이라든가 專門知識에도 限界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多數의 專門經營者라든가, 管理者 또는 技術者의 등장이나 요청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工場의 擴大는 設備機械台數의 증가를 가져왔고, 改善된 機械의 導入과 이제까지 사용하

8) 抽稿, 維新理念의 經營主體思想과 行動, 國民論壇 1977, 제 15호, 韓國維新學術院

9) 抽著, 工業經營學, 1959, 一潮閣

10) 栗田眞造, 經營史, 1960, 千倉書房

11) 抽稿, 經營者論, 新經濟, 1961, 5月號, 財政社

던 機械의 廢棄는 비록 一時的으로는 勞動者의 採用을 감소시키는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많은 勞動者, 管理者, 技術者들로부터 이루어지는 組織을 갖추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¹²⁾. 企業의 成長에는 이전보다도 企業의 工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數를 증가시켰었으며, 더구나 그들 많은 사람들의 業務擔當을 機能의으로 分化해가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이와 같이 해서 企業家는 自己業務의 적지 않는 部分을 經營者나 技術者에게 委任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¹³⁾.

그 둘째의 限界는 資本上의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企業家는 工場의 擴張하기 위해서는 利益의 대부분을 그것에 投下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資本의 부족은 두드러진 것이 사실이었으며, 이제까지와는 달라서 自己資本의 投下만으로는 뜻한 바의 工場擴張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企業內의 資本蓄積에 의한 資本의 運用과 더불어, 企業의 外部에서 資本을 調達하는 방법이 생각되기에 이른 것이며, 여기에서 이른바 株式會社制度를 채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制度는 필연적으로 企業家가 自己企業에서 疎外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企業家는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自己企業을 運營해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企業家는 企業組織의 最高階層에 있으며 支配力을 가지고 있는 것에는 틀림이 없으나, 다른 組織構成員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어서, 이전과는 달리 行動에 많은 制的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더구나 株式會社制度를 採用하고, 企業家의 所有株式이 적을 경우에는 企業家自身的 地位는 오히려 不安定한 것으로 되었다. 이렇게 해서 企業家는 自己企業에서 疎外되기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이 段階에서는 企業은 企業家個人的 것이 아니라 하나의 社會的인 制度로 탈바꿈을 한 것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¹⁴⁾.

이와 같은 變遷을 해 오는 동안에 企業의 支配者는 企業家에서 專門的인 經營者나 管理者에게로 移行되어 온 것이나, 그 支配力은 企業家에 비교해서 훨씬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出資者는 아니고, 自己能力이나 知識이 支配의 源泉으로 되고 있었던 것이며, 財産權을 支配의 主要源泉으로 삼았던 企業家와는 아무래도 다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¹⁵⁾.

오늘날의 企業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이며, 따라서 오늘날의 企業에는 決定的인 支配力을 가진 個人이나 利害集團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을 것이다. 더구나 大企業이라고 불리우는 企業들은 대체로 個人的 手에서 떠나서 하나의 社會的인 制度로서의 自律性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株主들로부터 委任된 專門經營者群이 無機能株主라든가 金融機關 등으로부터의 이른바 制度的支配의 증가에 의해서 支配力을 伸長해 가고 있다는 見解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現代의 企業은 이미 個人的 所有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며, 그 내부에는 복잡한 組織構造를 지니고 있고, 더구나 利害關係者로부터 구성되고 있는 社會的인 制度로서 自律化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3-2 營利概念의 社會化

市場社會에 뒤이어서 產業革命이 일어나고, 資本主義라든가 産業化가 시작되기에 이르렀는데, 이 時期는 아무래도 小企業家가 典型的인 社會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資本主義나 産業化가 現代에 이르기까지 장장 200년이란 세월을 흐르는 동안 小企業家에서 企

12) 中嶋清一, 設備と工具管理, 1976, 日刊工業新聞社

13) 三島康雄, 經營史學의 展開, 1951, ミネルヴァ書房

14) 牛尾眞造, 經營學說史, 1956, 日本評論新社

15) Burnham, J.,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The John Day Co.

業家으로 移行했고, 工場擴大 등으로 말미암아 專門經營者나 技術者의 등장과 더불어 많은 勞動者의 採用, 株式會社制度의 導入, 企業家의 企業에서의 地位低下 또는 企業自體의 自律化 등과 같은 줄지는 주요한 경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구나 企業規模는 점차로 커져가는 경향에 있으며, 寡占化라든가 獨占化도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200年間の 내력은 人類史上으로 가장 經濟的인 豊有를 享受할 수 있었던 時代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小企業家가 社會의 중심으로 되었던 自由經濟時代에는 各個人이 가지고 있던 自由로운 行動의 範圍는 차츰 制限되기에 이르렀다. 현재에서 보면 小企業家時代의 理念으로서는 상당히 멀어진 데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특히 1920年代 이후의 大恐慌勃發에 의해서 社會는 스스로 自動的으로 均衡해 갈 것이라는 理論과 各個人의 自由로운 行動이 社會全體의 福祉에 연결될 것이라는 理念은 이미 빛을 잃기 시작했으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¹⁶⁾.

이와 같은 사실에 直面해서 大企業은 小企業家時代에 誕生했고, 이후로는 一貫해서 企業이라든가 企業家의 行動動機로 된 營利主義를 弱화시키든가, 아니면 修正을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났다. 大企業이 自己利益을 最大限으로 획득하자면 企業自體의 生存과 維持는 얼른 보기에 손쉬울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大企業의 營利追求의인 行動은 대체적인 경우, 利害者集團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니되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大企業에 대한 批判의 대부분은 이와 같은 企業行動에 근거를 두고 있음은 周知의 사실일 것이다¹⁷⁾. 그러나 여기에서 現代企業의 生存과 維持를 위해서 필요한 最適利益追求에 그쳐야만 할 것이라는 새로운 營利理論이 整立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으로 믿는다.

現代의 企業이란, 단순한 營利追求體가 아니라, 그것은 社會의 構成單位인 것이며, 더구나 그것은 強力한 影響力을 지니는 것이라고 인식할 때, 企業이 스스로 利益追求에만 意思決定과 行動方向을 設定한다는 것은 이미 許容될 수 없는 限界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企業은 이상과 같은 社會的인 責任을 自覺하고, 自己利益과 社會全體의 福祉가 연결될 수 있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社會는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自動的으로 調整되고, 均衡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小企業家時代의 信念이 이제금 하나의 神話로 조차 되어버린 오늘날에 있어서는 企業과 그의 支配集團으로서의 經營者는 스스로 새로운 理念을 探求하고 그것에 따라서 行動하여야 할 것인데 이 때의 終局的인 課題는 營利理念의 社會化가 基調로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4. 經營倫理와 韓國의 經營

4-1 經營의 論理

企業 특히 영향력이 크고 利害者集團을 많이 가지고 있는 企業은 利害者集團이라고 하는 企業의 同伴者에 奉仕하고, 동시에 同伴者間의 利害對立을 調整하고, 同伴者에 대한 奉仕를 公平한 原則에 입각해서 分配해 가지 않으면 아니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社會的인 責任을 自覺하고, 또 實踐하는 동시에 自社의 存立과 維持에 調和시켜야 할 것이 期待된다¹⁸⁾.

現代企業은 産業公害·消費者運動 등과 같은 많은 문제에 걸리고 있으며, 消費者들로부터

16) 池內信行, 經營經濟學史, 1955, 理想社

17) 拙 著, 經營學, 1964, 文運堂

18) 拙 稿, 維新理念의 經營主體思想과 行動, 國民論壇 1977, 15號, 韓國維新學術院

터 날카로운 批判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이 경우 企業에 賦課되는 것은 이상과 같은 社會的인 責任을 증식으로 하는 經營理念을 認識하고, 調整하고, 實踐할 수 있는 行動을 갖추지 않는다면, 社會的인 制度로서의 企業은 消費者들로부터 날카로운 批判을 받을 것이며, 마침내는 存立과 維持는 극히 不安定하게 될 것이며, 나가서는 行政力의 參與를 容易化하게 하고, 企業으로서 制限된 自由를 한층 더 弱化시키고야 말 것이다. 現代의 企業經營者는 自社의 經營理念을 보다 具體的으로 研究分析하며, 社會的責任의 수행과 自社存立과 維持를 위해서 調整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아니된다.

4-2 經濟自立과 韓國經營

가장게는 維新政策 이후로 우리나라의 經濟는 많은 점에서 注目을 받을 만한 처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韓國經營의 特質은 封建的時代의 鎖國主義에서 찾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產業合理化의 必要性이 새삼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¹⁹⁾.

그러나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韓國의 經營·韓國의 經營理論에 대한 문제인 것이다.

우선 韓國의 經營이란,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이라고 가볍게 다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場所의 限定으로만 취급되는 것으로서, 상당히 널리 파급되고는 있으나, 이것만으로서의 아무래도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는 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韓國에 있어서의 어떤 經營을 말하는 것인가에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韓國에 있어서의 經營에는 家內經營, 零細性經營, 中小企業經營에서 大企業經營이 있을 것이며, 또 그곳에 있어서의 經營이나 經營理念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히 韓國의 經營이라고 하면, 그것은 工業化라든가, 近代化를 대표하는 뜻에서 韓國에 있어서의 代表的經營으로서 大規模經營을 指稱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 문제로 되는 것은 韓國의 經營에 대한 歷史的制限이 너무나도 많이 舉論된다는 점인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見解는 韓國의 經營에 대한 現狀認識 내지는 그의 近代化評價를 위해서 깊이 聯關되는 問題일지 모른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前近代의이며 封建的인 殘滓로서 혹은 日本的인 것이 殘存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먼저 그것이 否定되고 排除되어야 할 것이라고 評價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히 外國인들이 바라보는 見解로서, 韓國的인 것이야말로 韓國의 工業化, 近代化의 原動力이라고 높이 評하는 점인 것이다. 이들 兩極端의 見解들은 今後에도 다시금 實證的으로 研究되어야 할 問題點인 동시에, 筆者의 經營史觀과도 깊은 相關性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다루어졌던 韓國의 經營의 制度的 혹은 理念의 特徵은 가령 顯庸關係에 있어서의 主從關係를 기초로 하는 終身顯庸關係, 年功序列을 기초로 하는 人間關係는 家父長的 觀念을 기초로 하는 家族主義的經營理念 혹은 國家主義的經營理念 등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한편 韓國의 經營構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最近에 이르기까지 實業家든가 事業家は 있었으나, 經營的管理者는 없었다²⁰⁾. 따라서 韓國의 經營構造는 事業과 企業을 統一하는 마네지먼트 自體의 힘에 의해서 보다는 環境의 制約의 힘에 依存하는 바가 많은 모양이다. 다시 말하면 經營力은 事業面이나 企業面의 발전에 適應해 간다는 것과 같은 아주 消極的인 것이었다. 이와 같은 韓國의 經營構造의 특징이 事業과 企業과 마네지먼트의 不均衡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특히 마네지먼트의 弱化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逆으로 理念의 飛躍

19) 高承濟, 近世韓國產業史研究, 1959, 大東文化社

20) 高承濟, 韓國經營史研究, 1975, 韓國能率協會

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4-3 韓國의 經營理論

여기에서 韓國의 經營理論을 생각할 경우, 經營學의인 經營理論은 극히 최근에야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第2次大戰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의 事業經營理念史라든가 企業家精神史는 韓國經營理念前史라고 보아야 한다.

第2次大戰以後의 經營은 어쩌면 政府主導의이면서 安保의觀念이 앞선 것이므로, 그의指導的經營理念은 오히려 家族主義・財閥主義인 입장에서 너무나도 目的的制約에 가로놓이는 것과 같은 印象이 깊을 뿐 아니라, 經營에 있어서의 營利主義만이 前面에 突出하고 合理化主義는 뒷전으로 감추어지는 느낌이 짙은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經營은 實業家經營 내지는 資本家經營인 것이지, 마네지먼트는 아직 成立하는 바가 없었다. 財閥이라고 일컫는 곳에서도 마네지먼트의인 것은 없었다. 그러나 이제쯤은 自律性을 갖춘 專門化에 이르는 것 같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아메리카의 經營理論과 그의 특징을 端的으로 말한다면 프로페트쇼날・마네지먼트의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²¹⁾. 다시 말하면 基督教의인 職業觀과 個人主義와 民主主義에 입각되었을 것이나, 背景으로서의 科學的合理主義에 의한 營利主義와 社會的責任의 一致를 自覺하는데서 緣由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메리카가 새로운 마네지먼트의 技術을 차례로 創造開發해 가는 것은 이와 같은 經營理念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第二次大戰以後에 있었던 韓國의 經營理念의 發展은 어떤 것이었는가, 특히 大企業에 있어서의 經營을 急速하게 마네지먼트 中心으로 轉換한 것 같은 印象이 짙다. 이제까지 民族資本에 의했던 企業形成이 거의 不可能했던 過程속에서도 아주 徐徐히 成熟되어 온 實業家나 資本家 속에 潛在하고 있던 經營者가 經營構造의 突變과 더불어 顯在化하고 自律性을 獲得하기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있으나, 너무나도 조금했던 것과 같은 缺陷을 內在하고 있었다고 믿어진다. 事業이나 企業의 巨大化는 마네지먼트의 成立을 要求했고, 또 마네지먼트의 成立은 事業革新을 促進하고 마네지먼트自體의 成長이나 高度化를 不可避의인 것으로 만들었다. 이와 같이 韓國에 있어서의 마네지먼트革命이야말로 오늘날의 高度經濟成長의 原動力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은 理論的인 飛躍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의 마네지먼트革命이란 그것 自體를 否定할 수는 없다.

특히 技術革新을 遠因으로 삼을 수 있는 經營構造의 變革은 프로페트쇼날-마네지먼트의 成立에 의해서 促進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韓國에 있어서 마네지먼트의 成立에 있어서는 아메리카의 經營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經營構造의 발전과 더불어 마네지먼트도 學으로서 再整備되고 새로운 管理技法의 導入과 現代科學・技術을 採用하는 것에 의해서 그것은 操作的인 것으로 되었으며, 現實에 대한 豫測이나, 指導에 있어서도 實際的인 成果를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概念은 마네지먼트의 나라, 아메리카에 있어서조차도 마네지먼트・레보류온이 提唱되고 있으며, 새로운 經營理念이 追求되고 있는 것까지 노력이 試圖되고 있는 것을 찾아 본다면 韓國의인 마네지먼트・레보류온은 오히려 당연한 요청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지 않으면 아니될 것은 아메리카 經營의 특징은 科學的 合理主義이라는 점인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科學的, 合理的인 思想에 支配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非人間的일 수도 있다는 反省도 否定할 수 없을 것이다.

21) Burnham, J.,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The John Day Co.

人間關係論이나 人間組織論에서 行動科學論의 등장도 바로 그러한 反省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韓國經營은 非合理的 義理人情的인 側面을 지니고 있어서 아메리칸인 경우와는 아주 對照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韓國 마니지먼트의 발전은 바로 合理化運動이 主流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科學인 아메리카經營學을 無批判的으로 導入해 온 사실에 대한 反省을 反省으로 그치지 말고 그의 受入基盤으로 되어 온 韓國의 經營을 다시 한번 評價해 보지 않으면 아니된다. 여기에서 韓國의 經營理念의 새로운 方向이 찾아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5. 結 論

이상에서 產業社會의 歷史의 背景을 간추려 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 자리잡고 있는 經營主體의 思想과 行動을 檢討해 보았다. 어쨌든 現代의 企業은 새로운 時代의 挑戰을 받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存立의 可能性을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아니 된다. 過去의 韓國經營理念은 民主主義에 의해서 혹은 國際化에 의해서 變遷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제금 이상과 같은 變遷에 代替될 수 있는 새로운 經營思想이 體系化되고 있다고도 말 할 수는 없다. 더구나 物質的 價值觀이 先行하고 個人自由의 擴大, 生産性向上을 위한 시스템設計의 缺如라든가, 組織化나 分業化에 의한 參加意欲의 減退, 高度한 科學技術에 대한 不信, 所得과 分配에 따르는 많은 問題點들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모든 問題點들을 效果의으로 해결해 보기 위해서는 國民的 目標에 대해서 個別企業이 如何히 貢獻할 것인가를 企業이 스스로 찾아낼 때 비로소 韓國의인 經營理念의 方向이 發見될 수가 있을 것이다.

參 考 文 獻

Towne, H.R., The engineer as an Economist, 1886, A.S.M.E.

Weber, M.,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Zuerst 1904—1905)

權世元·姜命圭共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精神, 1958, 一潮閣

Weber, M., Wirtschaftsgeschichte, 1923, 趙璣濬譯; 社會經濟史, 1951 文研社

Burnham, J., The Managerial Revolution, 1941, The John Day Co.

山城章, 最高經營政策論, 1960, 白桃書房

拙稿, 維新理論의 經營主體思想과 行動, 國民論壇 1977, 15號, 韓國維新學術院

拙稿, 經營者論, 新經濟, 1961, 5月號, 財政社

池內信行, 經營經濟學史, 1955, 理想社

高承濟, 近世韓國產業史研究, 1959, 大東文化社

高承濟, 韓國經營史研究, 1975, 韓國能率協會

拙著, 經營組織論, 1962, 博英社

拙著, 經營學, 1964, 文運堂

拙著, 工業經營學, 1959, 一潮閣

崔文煥, 近世社會思想史, 1953, 白映社

崔虎鎮, 一般經濟史, 1946, 理想書院

牛尾眞造, 經營學說史, 1956, 日本評論新社

栗田眞造, 經營史, 1960, 千倉書房

三島康雄, 經營史學의 展開, 1961, ミネルヴ書房

中嶋清一, 設備と工具管理, 1976, 日刊工業新聞社

The Study on the Trend of Business Idea and its Behavior

Yi, Geun-Heui

Historical background of industrial world is examined, through which business thought and behavior are studies. At any rate, business of today must find the way to subsist as going concerns facing the challenge from coming years. The idea of business management in Korea will have to change in accordance with democratic or international way of thinking. Any new business thought to meet such changes are not made available yet.

For management, it is the pressing issue to give true reflection of the past having followed the western culture, to study every aspect of the present business environment and to pursue new logic and ethics of future business.

Busing on the such stand point, the idea of future business world may be framed and established only when individual business themselves find the way in which they can contribute to national objectives.